

도농복합형 충남도에 맞는 시민사회 조직 활성화 방안

김 종 수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세움 상임이사, srevo21@naver.com

이 다 현

(사)교육나눔 책임연구원, dahyun0318@naver.com

김 진 아

사회적협동조합공동체세움 사무국장, communityseum@gmail.com

이 연구는 시민사회운동이 태동하고 성장하는 필요조건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충청남도과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함.

CONTENTS

1.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우리나라 및 충남의 시민사회 현황
3. 충남 시민사회단체 심층 인터뷰 분석
4. 정책 제언

요약

- ◀ 상당수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충남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32개로 제주(354개), 대구(41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 충남 시·군별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지역이 충남 전체의 25.1%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당진(9.8%), 아산(9.0%) 순으로 나타남.
- ◀ 충남 시민단체들의 대표적 활동 영역은 자원봉사(18.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복지(14.3%), 교육·연구(8.9%), 청년·청소년·아동(6.8%), 문화·체육(6.5%)으로 나타남
- ◀ 시민사회는 공익적 활동을 통해 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형성과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농촌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과 발굴이 필요함.
- ◀ 지역 내 정책적, 공간적 플랫폼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거리와 의제찾기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 민-민, 민-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개별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역할(커뮤니티 공간 창출, 인적자원개발교육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후속세대 양성 노력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내부적 혁신과 물질적 지원이 요구되며, 성공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과 관이 모여 다양한 성공경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음.

01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분분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2000년에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음
 -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로 민주사회 구현과 같은 공익적인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잔여수입에 대한 배분금지의 제약을 받으며, 정치적·종교적이지도 않고, 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했으며, 회원이 100인 이상이면서 정부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민사회 조직의 발생의 원인은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 기업가 정신 : 사회의 변화를 목표하는 것. 사회적 가치 창출, 비즈니스 사업 활동에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사회적 문제 완화와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사회성, 혁신성, 시장성을 추구함
 - 정부와 시장의 실패 : 시장 실패에 정부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요는 불만족한 상태로 남게 됨. 이에 정부와 시장 실패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조직이 발생함. 실제 정부는 비영리 조직 수입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과의 관계 :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 소비자나 판매자의 과도한 거래비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비용 절감을 통해 신뢰를 창출하여 비영리 조직이 시장에 개입하게 될 수 있음
 - 커뮤니티와의 관계 : 공유된 인식 아래 행동하는 조직으로서 커뮤니티가 서비스 제공을 하거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 조직 역할을 함
 - 법적 제도적 환경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법률 및 지원 정책으로 인한 시민사회 조직의 발생을 의미함. 정부 보조금의 지원이나 감세, 우편요금이나 행정적 지원 등과 같은 직·간접적 정책수단으로 구성 됨
 - 공급측면적 이론 : 비영리영역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선행한다는 관점. 사회적(비시장적) 기업가들이 비영리조직을 만들어 만족되지 못한 수요를 창출하여 충족시켜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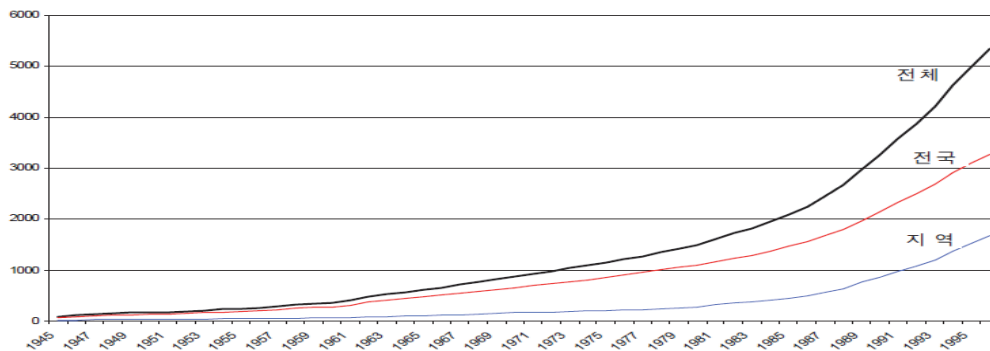
- 시민사회의 실패 요인을 사회적·시장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내부 요인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초기 참여자들의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제한된 관심, 둘째, 낮은 수준의 인적자원과 한정된 조직 자원 및 조직 운영의 실패와 같은 아마추어리즘, 셋째, 좋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충분한 자원 부족과 소수 재정지원자에게 의존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넷째, 섹터 간 다원성이 유사 NGO의 중복 설립과 난립,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단적 공동행동 실패로 인한 파편화, 다섯째, 특정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이데올로기적 편협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 등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가 자원부족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음. 즉,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등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의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

02

우리나라 및 충남의 시민사회 현황

- 우리사회의 시민사회 형성은 1960년대 초기 형태를 갖추기 시작,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형성됐고,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성장했음



〈그림 1〉 한국 시민단체의 의사 성장 곡선

자료 : 신동준 · 김광수 · 김재운(2005),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p. 19

- 국가권력 견제 중심의 시민사회 역할은 2000년 낙선운동을 정점으로 생태, 인권, 성, 빈곤, 노동, 평화 등 가치지향적인 의제들로 다양화됨.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거대 시민단체의 활동은 쇠퇴함
- 2008년 촛불집회 이후 국제원조와 사회적경제 NGO 단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며,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크게 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조직이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 시민사회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의 다양화, 조직구조의 유연화, 중간 지원조직 확대, 풀뿌리 및 대안사회운동 조직 등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조직과 대안사회운동 활성화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토대를 형성한 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표 1] 비영리민간단체 시·도 등록 현황(2017년 9월)

(단위 : 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12,220	2,049	813	416	669	605	546	349	2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97	330	456	432	921	568	761	727	354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표 2] 충남 시·군별 시민사회조직 등록 현황¹⁾

(단위 : 개)

계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임의단체	중간지원조직	기타	무응답	계
계통	3	3	0	0	0	1	7
공주	5	15	0	0	3	0	23
금산	4	10	1	0	0	0	15
논산	1	14	0	0	0	0	15
당진	13	40	7	0	2	0	62
보령	11	15	4	2	0	0	32
부여	3	7	2	0	2	0	14
서산	8	31	6	1	2	1	49
서천	8	19	2	1	2	4	36
아산	7	36	4	1	5	4	57
예산	16	19	0	7	2	3	47
천안	63	75	4	4	4	8	158
청양	7	15	1	2	2	0	27
태안	11	27	2	0	3	2	45
홍성	9	15	1	2	3	0	30
대전	2	11	0	0	0	0	13
계	171	352	34	20	30	23	630

자료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7). 충청남도 공익단체 총람.

1) 대전이 모집단에 들어간 이유는 대전에 연고지를 두고 충남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 서울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합하면 전체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34.7%를 차지하며 상당수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충남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432개로 제주(354개), 대구(41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음
- 충남 시·군별로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지역 시민사회 조직이 충남 전체의 25.1%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당진(9.8%), 아산(9.0%) 순으로 나타남.
- 충남 시민단체들의 대표적 활동 영역은 자원봉사(18.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복지(14.3%), 교육·연구(8.9%), 청년·청소년·아동(6.8%), 문화·체육(6.5%)으로 나타남

03

충남 시민사회단체 심층 인터뷰 분석

1. 조사개요

- 시민사회 활성화 요인에 대한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시민사회 조직 대표를 비롯한 중간지원조직 등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30일간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을 대상으로 함. 대상 선정은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도 담당 공무원에게 추천을 받음
- 인터뷰는 총 7곳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아래와 같음.
 - 선정된 조직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 역시 관리자급으로 조직의 발생부터 현재 운영까지 여러 측면을 두루 파악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한정함.
 -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시민사회 조직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참고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곳, 실패한 시장을 대처하는 역할, 커뮤니티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역할 등을 경험했다고 판단되는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표 3] 인터뷰 대상

조직/기관명	인터뷰 대상	지역	성격
천안 NGO센터	전 사무국장	천안	중간지원조직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천안	복지
천안 KYC	대표	천안	주민공동체
우리동네협동조합	사무국장	천안	사회적경제
홍성 YMCA	사무국장	홍성	옹호활동
마을활력소	사무국장	홍성	주민공동체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대표	홍성	사회적경제

2. 조사분석

(1) 시민사회 조직의 태동 요인

● 사회적기업가 정신

- 많은 시민조직의 대표들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욕구나 지역활동의 동기를 통해, 혹은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 조직을 설립하거나 함께 일하게 됐다고 응답함. 물론 인식된 문제의식과 접근방식은 지역과 조직 여건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했지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를 조직했다는 공통된 시작점이 있음

● 정책/사업

- 정부 정책의 마중물은 시민사회 조직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지원적 역할로 작용하며 시민사회 태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 씨앗자금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움직여 토대를 만들거나, 아예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전문성과 지역의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정부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 시민들과 함께 할 공간과 물리적인 기반을 조성하기도 함

● 네트워크

-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조직의 태동과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현안과 의제가 있을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됨. 풀무생협과 풀무학교의 예처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조직이 있다면 시민사회 조직의 지역 정착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사례가 있음. 이같은 네트워크는 단시간 내 이뤄지기 보다 수년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으로서 축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지역성

- 마을활력소와 같은 면단위 중간지원조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이 존재하고 그 조직들이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할 때 중간지원에 대한 욕구가 발굴되고 있음. 이는 시민사회 조직의 태동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 즉 지역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슈

- 지역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공동체가 조직으로 발전하여 시민사회 조직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음. 이런 이슈는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을 통해서 제기되기도 하고, 조직 설립 시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 조직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이후 이슈를 해결하거나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

(2) 시민사회 조직의 운영 요인

● 사회적기업가 정신(인적 자원 개발)

- 사람은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대표적으로 리더십의 문제를 들 수 있음. 실제 많은 시민사회 조직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음. 특히 조직의 유지를 위한 후속세대 발굴 및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 리더십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있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책/사업

- 시민사회 조직들이 관과의 협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사회 조직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느끼고 있음. 그들은 민관협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또 그 방법을 통해 예산을 분석하거나 민관 합동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네트워크

- 조직의 네트워크는 조직의 운영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함. 많은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자연스럽게 조직 운영 전략으로 채택하는 실정임. 이를 위해 정보와 공간의 공유 등의 실제적인 운영으로 시민사회 회원 확장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음

● 지역성

- 시민사회 조직 운영은 지역 특성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보다 지역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밀착된 관계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일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실제 흥성의 흥동지역은 지역의 역사성, 관계성이 조직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함

- 이슈에 대한 대응

- 시민사회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슈를 끊임없이 생산하거나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슈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의 공모사업을 시민들에게 중계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예 조직 내 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음

- 운영 시 애로사항

- 많은 조직들은 조직에 사람을 줄여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조사됨. 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정책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

(3) 조직의 성과

- 사회적 자본 확대와 사회 변화

- 시민사회 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늘려나가는 것 자체를 조직의 성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이런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의 시민성 성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을 인큐베이팅 시키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근본적인 사회 변화 자체를 조직의 과제이자 성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음

- 지역사회 영향력 확대

- 조직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큰 성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늘리게 되고 이는 다시 조직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불러오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시민사회 조직의 근간이 그 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함

- 활동 플랫폼과 활동가 인큐베이팅 역할

- 시민사회 조직은 지역에서 새롭게 활동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활동 무대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농촌생활에 있어 소농들이나 귀농한 초보 농민들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해 주고 인큐베이팅 하는 것 또한 시민사회 조직의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 시민사회 조직의 태동과 운영 요인 요약

항목	태동요인	운영요인
사회적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각성 · 지역의 욕구 발견 · 공동체 의식의 발동 · 개인의 기대와 지역네트워크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력의 재생산 · 내부평가 · 성장에 대한 자극 · 시민성의 확장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앗자금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 공간기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의 상호이해를 위한 장치 · 예산 분석 및 합동워크숍 ·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마중물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도움주는 앵커조직의 역할 ·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회의 역할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와 정보망 · 공동 공간 마련 · 앵커조직의 헌신과 노력 · 플랫폼 형성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농촌의 차이 작동 · 도시지역의 시민단체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밀착성 이해 · 지역의 역사성, 관계성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 이슈 찾기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회비가 줄어들면서 인건비 문제 발생 · 조직의 노하우를 잇기 힘들 · 점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떨어짐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확장 · 새로운 조직의 인큐베이팅 · 활동 무대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역할 	

04 정책 제언

-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가 태동되고 성장하는 필요조건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충청남도과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도출된 시민사회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지원과제

- 시민사회 조직 인재육성
 - 많은 조직들은 사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인터뷰에서 보았듯 개별 조직이 사람을 자체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공익활동의 확장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시민사회 조직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될 수 있음
- 활동을 위한 공간적 토대 구축
 - 적절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조직(후원금액의 50% 이상을 공간임대료로 내는 시민사회 조직도 존재)이 대다수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할 수 있는 협력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의 후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바꾸어나가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발굴 시스템 안착
 - 도시와 농촌의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단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새로운 소모임 단위들이 등장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민사회 조직의 새로운 발굴에 있어서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욕구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며, 관계를 통한 활동을 보장해주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들의 욕구를 발굴하기 위한 외부 자극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지역사회 인큐베이팅은 한 조직이 아닌 지역 조직의 연대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함.

● 융·복합 거버넌스를 통한 지원

-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확장을 위해 매우 중요함. 특히 중간지원조직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자원들을 융복합하여 지역별 필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함.
- 동네자치, 농촌 마을만들기, 시민사회 지원, 사회적 경제 등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자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작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축적한 경험을 통해 성과를 내고, 그 결과를 역으로 관에 융복합 요청하는 방식이 필요함.

● 도시와 농촌의 차이에 따른 접근

-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시민사회 조직의 지원 뿐 아니라 모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지역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 도시지역은 새로운 시민사회 조직을 만들 때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은 시민사회 참여 동력이 떨어져있어 다른 방식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더욱 집중함
- 농촌지역의 중요한 중심조직으로서 농민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 기본적으로 농촌 농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민조직이 탄탄한 곳은 새로운 시민사회 조직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음.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역사회 연결고리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함

(2) 정책 제언

-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시민사회 조직의 태동과 운영 요인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가, 정책/사업적 요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성, 이슈의 요인은 도시와 농촌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음

- 해당 지역의 인구·사회·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행 필요

● 새로운 조직 발굴 및 기존 단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시민사회의 조직과 태동이 어려운 농촌의 시민사회 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농민단체를 활용하거나 기존 법적·제도적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중간지원조직 등이 확보한 기존 지역 동아리들의 활동을 시민활동으로 연결하는 고민이 필요

●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역할 강화 필요

- 시민사회조직의 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 민과 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연계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개별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과 영역 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자극이 필요함. 또한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 요구됨

●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

- 민관협치를 전담하는 조직의 활성화 필요
- 지역 사례 발굴 학습은 물론 시민사회 조직 육성을 위한 융복합 거버넌스 회의 개최 필요

김 종 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상임이사, srevo21@naver.com

이 다 현

(사)교육나눔 책임연구원, dahyun0318@naver.com

김 진 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 사무국장, communityseum@gmail.com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년도 전략과제 “도농복합광역시도 충남도 상황에 적합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 김인춘(1998). “한국 비영리 영역의 이해”. 한국의 비영리영역과 사회발전 세미나 자료집
- 김종수·황정미·이미경(2016). 지속가능한 충청남도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충남연구원.
- 류영아(201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영선(20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NGO연구」 10(1): 139-169
- 송재봉(2015). 한국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NPO·NGO센터)의 현황과 과제.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의 현황과 문제 포럼 자료집.
- 송호근(2016). 한국의 시민과 시민사회의 형성 : 시민성 결핍과 과잉 ‘국민’. 지식의 지평. 대우재단.
- 이관률·도묘연(2016). “충남지역 NGO의 활동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요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199-217
- 이차희·탁영란·김민서·손용훈(2014). “농촌체험관광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양평군·이천시 농촌나드리 비교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0(3). 1-14.
- 장수찬(2013). 2013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역량강화 정책포럼 자료집, ‘시민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NGO학회
- 조규원(2014). NGO와 사회적기업 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철민(2017). 2017년 시민사회의 과제와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2017). 충청남도 공익단체 총람.
- 행정안전부 (2015).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현황. 사전정보 공표목록.